

초연결 사회란 이런 것... 삼성 차세대 신기술 총출동

SAMSUNG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쇼인 'CES 2019'에서 AI(인공지능)와 5G 기반의 혁신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로봇 플랫폼인 '삼성봇'과 웨어러블 보행 보조로봇을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시 주제는 '지능화된 초연결 사회(Intelligence of Things for Everyone)'로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켜줄 미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강조한다.

삼성전자는 참가 업체 중 가장 넓은 3368㎡(약 1021평) 규모의 전시관을 '삼성 시티'라는 콘셉트로 마련하고 '뉴 빅스비'를 중심으로 한 커넥티드 솔루션과 각 사업 부문별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진보를 누릴 수 있도록 기기간 연결성을 넘어 지능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뉴 빅스비가 탑재된 AI스피커 '캘럭시 홈'은 집 안의 여러 기기들을 더욱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TV나 패밀리허브 스크린 등을 통해 음성뿐만 아니라 시각화된 정보까지 결합시켜 더욱 풍부한 AI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명상을 할 때 음성 가이드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TV가 시각적으로 동작을 보여주고 명상에 적합한 조명, 음악, 온도 등이 자동으로 제어된다면 더 몰입감 있는 명상을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가 수년간 개발해온 로봇 플랫폼 '삼성봇'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삼성봇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AI 프로젝트다. 간담회 현장에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실버 세대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반려 로봇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모델들이 시기술을 기반으로 화질·사운드·스마트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방문객들이 각각의 장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관을 소개하고 있다(왼쪽). 삼성전자는 인텔리전스 플랫폼 '뉴 빅스비'와 IoT기술을 기반으로 에어드레서, 패밀리허브 냉장고, 스마트 오븐 등 삼성의 다양한 기기들을 연동해 '커넥티드 솔루션'을 제시한다. /삼성전자



차세대 AI 프로젝트 '삼성봇' 공개 미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제시 5G로 달라질 미래 비전 체험도

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집·사무실·마트 등 각각의 공간은 물론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일상의 경험을 이어 주는 서비스도 강조했다.

집에서 들던 음악을 차 안에서 그대로 이어서 들을 수 있고, 귀가 중에는 차량의 '디지털 콕핏' 스크린을 통해 '패밀리허브' 냉장고 내부를 확인해 부족한 식재료를 파악할 수 있다.

2019년형 패밀리허브는 뉴 빅스비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기기 안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제 3자 서비스까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고,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 주는 '스마트 뷰' 기능도 단순 미러링이 아닌 앱 제어 등의 조작까지 가능해졌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세탁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AI 기능을 강화한 대용량 드럼

세탁기 신제품도 선보인다.

'QLED 8K' TV 98형 제품도 처음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형 스마트 TV로 뉴 빅스비가 적용돼 더 자연스러운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시청 이력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유니버설 가이드'의 진화를 직접 시연해 호평을 받았다.

예를 들어, TV를 켜면 '유니버설 가이드'가 사용자가 즐겨보는 축구경기를 추천해주고 경기 시작 전까지 다른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다면 '어제 본 거 들어줘'라든지 '10초 뒤로 돌려줄래?'와 같은 명령을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TV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와 'QLED 8K' TV 투트랙 전략을 공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신모델을 중심으로 별도 전시관을 만들어 거래선 상담 등을 진행하며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커브드 모니터 최초 120Hz 듀얼 QH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컴퓨터 주변 기기 부문 최고 혁신상

과 게이밍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수상한 49형 'QLED 게이밍 모니터', 커브드 모니터에 세계 최초 4K 해상도를 적용해 혁신상을 수상한 32형 '그래픽 전문가용 모니터'를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5G를 통해 달라질 미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스마트폰 형태 단말을 전시해 5G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앞선 기술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5G 장비로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을 받았으며, 상반기 내에 미국에서 첫 5G 스마트폰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5G 이동통신으로 가능해질 미래 스마트 시티·스마트 팜·스마트 팩토리 등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삼성의 IT 기술과 하만의 전자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콕핏'은 지난해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사용자 경험과 안전성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콕핏 2019를 전시한다.

전년 대비 3개의 스크린이 추가돼 총 6

개의 스크린으로 구성되며, 전 좌석 개인에게 최적화된 환경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한다.

뉴 빅스비를 통해 차량 내·외부 기기 간 연결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안전한 운전 솔루션인 차량용 전방 주시 카메라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과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셀룰러 기반 차량 통신 기술 '등도'도 소개된다.

DS(다바이스 솔루션)부문은 거래선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빅데이터·전자 분야의 특화된 솔루션 제품을 선보인다.

2019 CES 혁신상을 수상한 ▲256기가바이트(GB) 3차원 적층(3DS) DDR4 서버용 D램 모듈(RDIMM) ▲3.84테라바이트(TB) 용량의 Z-SSD ▲차량용 512기가바이트(GB) eUFS ▲LED 조명용 광원 패키지 ▲스마트 라이팅 센서 모듈 등을 전시하며 삼성전자가 제공할 수 있는 초격차 제품들의 장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세운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안 볼 땐 말고, 볼 땐 퍼는 '롤러블 TV' 첫 선... LG 세계 최초 공개

LG전자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 공개 비디오 디스플레이 부문 혁신상 풀·라인·제로 등 3가지 뷰 타입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화면을 말거나 펼 수 있는 롤러블 올레드 TV를 선보인다.

LG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IT 전시회 'CES 2019'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를 처음 공개했다.

LG전자는 'TV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Revolutionary), 롤러블(Rollable) TV로 공간을 재정의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Redefine the Space)'는 의미를 담아 제품 이름을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로 지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는 세계 최초로 화면을 둥글게 말았다 퍼는 플렉서블 TV다. 이 제품은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곡면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올레드의 강점을 극대화했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 전시회에서 모델들이 세계 최초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를 앞세워 올레드 원조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대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품은 연내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확대 출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올레드 기술을 기반으로 ▲얇은 패널 뒤에 투명 강화유리를 적용한 '픽쳐 온 글래스' TV ▲4mm도 안 되는 두께로 마치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월페이퍼' TV 등 TV 폼 팩터(제품 형태)의 변화를 선도해 왔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는 사용자가 TV를 시청할 때에는 화면을 펼쳐주고 시청하지 않을 때에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 넣는다. TV 화면이 말리고 퍼지는 동안에도 올레드의 화질은 유지된다. 이 제품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런 특성 덕분에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는 TV 설치 공간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형 유리창 앞, 거실과 주방 사이 등에 두면 평상시에는 전망을 즐기거나 개방감을 유지시켜주고 원할 때에만 화면을 펼쳐 TV를 시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큰 화면이 외관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해 주로 벽면에 설치되는 기존 TV와 대조적이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는 전체 외관을 리얼 알루미늄 스피커에는 명품 패브릭 브랜드 크바드라트를 채택해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는 3가지 뷰 타입에 맞춰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65인치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풀 뷰' ▲화면 일부만 노출되는 '라인 뷰' ▲화면이 완전히 내려간 '제로 뷰' 등이다.

풀 뷰는 스스로 빛을 내는 올레드 소자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자연색을 구현하고, 퍼펙트 블랙 표현을 통한 완벽한 명암비, 뛰어난 시야각을 제공한다.

라인 뷰는 기존 TV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화면은 음악, 시계, 프레임, 무드, 홈 대시보드 등 5개 모드를 지원한다. 프레임 모드를 선택하면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사진을 TV 화면을

통해 흑백 감성을 담은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다. 무드 모드에서는 화면에 모닥불 같은 편안한 영상과 조명 효과를 줘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홈 대시보드는 TV와 연동된 스마트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제로 뷰에서는 사용자가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에 내장된 4.2채널 100와트(W) 출력의 스피커로 강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면 간편하게 고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전면 스피커에 탑재된 모션 센서는 TV 가까이에서 사용자를 감지하면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웰컴 사운드와 라이팅 효과를 줘 사용자에게 환영의 표현을 하고, 동작 대기 상태임을 알려준다.

또한 이 제품은 인공지능 프로세서 '알파92세대'를 탑재해 최적의 화질과 음질을 구현한다.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화된 자연어 음성 인식 기능도 제공한다.

LG전자 MC/HE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은 "세계 최초 롤러블 올레드 TV를 통해 디스플레이 진화의 정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세운 기자